



복습전략

학습 전략 복습 전략

학습지원부

1. 복습은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시험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그동안 나는 시험을 너무 많이 치러왔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볼 시험의 특성이 이제까지 봤던 시험과 다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봤던 시험과 비교해볼 때 앞으로 볼 시험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시험 준비를 위한 테크닉이나 복습 전략은 아마도 내가 받을 학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미 복습을 다 마쳤고 시험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와 부담이 없다고 느낀다 해도 자신이 이미 해왔던 일들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이번 호 학습 전략에서는 내가 복습에 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검토해보고 시험 유형에 적절한 복습 방법을 찾고 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 복습이란 무엇인가?

복습(revision)은 ‘다시 보는 것’(looking again)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학습 전략

복습 전략

수도 있지만, 강의 노트나 교재, 유인물, 실습 보고서, 문제집, 관련 수업 자료들을 단지 ‘다시 보기’한다고 해서 좋은 학습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복습이란 학습한 자료들을 다시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복습’을 할 때 실제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학습한 것을 완전히 터득할 것.
-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낸 뒤 이 부분도 역시 완전히 터득하도록 한다.
-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자신이 배운 것을 완전히 터득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학습 주제(혹은 시험)에 관하여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 내가 이해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능숙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한다.
- 시험을 치를 때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내가 얻게 될 시험 결과는 얼마나 열심히 복습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그것은 복습의 질(質)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3. 복습은 언제 시작할까?: 복습과 강의 과정 사이의 균형

대부분의 교수님은 시험 기간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계속하신다. 시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내가 주의 집중해야 할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학습 전략

복습전략

말이다. 따라서 시험 일자가 점점 다가올수록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에 만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서 정식으로 복습을 해야 하는 시간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일찍 체계적인 복습을 시작해야 한다.

4. 복습을 미루는 나의 핑계

1) 복습을 하느니 해야 할 다른 수업 과제물을 먼저 처리하는 게 낫다

각 수업의 평가에서 과제물과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주의 깊게 따져보자. 수업 과제물도 실제로 중요하지만 시험이 더 중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수업 과제물은 내가 좋은 학점을 받을 만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교수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시험은 나의 실력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과제물이 꽤 많다고 할지라도 체계적인 복습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과제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투자하는 시간을 지금까지보다 조금 줄이고 복습할 시간을 늘리거나 만드는 것이다.

2) “아직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흔히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새로운 학습 자료들을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꽤 있다. 교수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다투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다 가르쳐주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때때로 학생들에게 복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험을 치기 전에 한 학기의 강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는 교수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학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복습하도록 하자. 시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복습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나은 학습 결과를 낼 것이다.



학습 전략

복습 전략

3) “만약 지금 공부한다면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야....”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평계를 대면서 정식으로 복습을 시작하는 시기를 자꾸 뒤로 미룬다. 그러나 한번 공부했다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공부하는 것은 훨씬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어떤 내용은 공부하면 할 수록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그 내용에 대하여 더 깊은 뜻을 파악하게 되어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4) “지금은 아무도 복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해야 되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이 시작할 때까지 뒤로 미루자는 말이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학습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학기 처음부터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복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일 것이다.

5)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하는 복습의 양(量)과 질(質)은 나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결정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습은, 특히 일찍 시작하는 복습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투자이며 나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 “친구들이 나를 공부벌레라고 생각하는 것이 싫어....”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인기’와 ‘성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친구들보다 복습을 일찍 시작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나를 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놀리는 것은 친구들 자신이 복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변형된 형태로 자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복습을 시작했는지의 여부를 친구들이 실제로 알기란 매



학습 전략

복습전략

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미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복습을 시작하고 시간 관리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7) “나에게도 나만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항상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이것은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절한 이유라기보다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다. 복습은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복습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급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복습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는 없다.

앞으로 내게 주어질 시간과 비교하여 지금의 시간이 ‘나만의 생활’을 위하여 써야 하는 시간인지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내 이후의 삶의 질(質)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만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할 것인지를 냉철히 판단하고 자신만의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도 있지만, 좋은 학습 결과는 학업과 여가 간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8) “나는 지금까지 복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

만약 그동안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만족감이 학습 수행 능력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복습을 어렵지 않게 공부했던 운 좋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운’은 그때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운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충분히 복습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습을 일찍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학습 전략

복습 전략

9) “뭘 복습해야 할지 모르겠어……”

때때로 무엇을 복습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습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혹시 복습한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 가 되지 않는다. 학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식이라도 모든 지식은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도 배우지 않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 이 두 개 있는 경우보다, 네 개를 먼저 배우고 그 중 두 개만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학습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